

「소방재난본부 부분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1430
----------	------

발의년월일 : 2013년 7월 2일

제안자 : 도시안전위원장

1. 주 문

- 서울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집지역으로 건축물의 고층화·복합화, 도로여건 등 열악한 소방 환경으로 다양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날로 증가하는 실정임. 이에 서울소방의 총괄 지휘자인 소방본부장을 보좌할 부분부장 직제가 없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판단과 재난현장에서 지휘통솔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도록 부분부장 직제가 신설되어야 함.
- 또한 다양한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소방공무원은 출동부터 현장 활동까지 전반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최근에는 생활민원 등을 포함한 업무영역의 확대로 피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험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부분부장 직제 신설

- 서울은 인구의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고, 건축물의 고층화·복합화 등으로 인한 재난취약요소의 증가로 인하여 타 시·도와 비교하여 재난발생 2.3배, 취약시설 2.4배, 인구 2.9배를 차지하여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 소방의 총괄 지휘자인 소방본부장을 보좌할 수 있는 부분부장 직제가 없어 본부장에게 주요 정책 판단 및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솔 등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집중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서울소방은 서울시 본청 정원 16,830명의 약 40%에 달하는 6,607명의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 실·본부와 비교하여 소방에만 보좌기구가 없는 상황으로 조직구조 체계가 균형에 맞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모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소방의 조직운영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울소방재난 본부에 부분부장 직제 신설이 필요함.

■ 위험근무수당 인상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대응하는 소방공무원은 평상시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곳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있고,
- 실제 상황 출동 시에는 단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과도한 긴장감,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신체에 각종 질병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으며,
- 현장에 도착하여서는 앞이 분간되지 않는 시커먼 연기, 불길과 건물 붕괴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음.
- 더구나,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각종 교통사고처리, 재난 및 수해지역, 산악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물론 고드름 제거 등 각종 생활민원까지 확대되어 상시 출동하게 됨으로써 몸의 피로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험근무수당을 타 직종과 차별하여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함.

3. 이송처 : 안전행정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소방재난본부 부분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에 관한 건의안

서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도시인 반면 인구의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고, 건축물의 고층화·복합화 등으로 인한 재난 취약요소의 증가로 인하여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하여 재난발생 2.3배, 취약시설 2.4배, 인구 2.9배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의 출동이 필요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도 날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의 총괄 지휘자인 소방본부장을 보좌할 수 있는 부분부장 직제가 없어 본부장에게 주요 정책 판단 및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솔 등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집중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 본청 정원 16,830명의 약 40%에 달하는 6,607명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실·본부와 비교하여 소방에만 보좌기구가 없는 상황으로 조직구조 체계가 균형에 맞지 않은 실정이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은 평상시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실전상황과 동일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실제 재난현장 출동 시에 단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하여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과도한 긴장감은 심장박동과 호르몬 계통 등에 영향을 미쳐 신체에 각종 질병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 도착하여서는 앞이 분간되지 않는 시커먼 연기와 불길,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고현장과 건물붕괴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도심 교통사고처리, 재난, 수해지역, 산악지에서 발생하는 사고현장 등 최근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고드름 제거 등 각종 생활민원까지 확대되어 상시 출동하게 됨으로써 몸의 피로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타 직종의 공무원과 획일적으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소방대원들의 직무에 걸 맞는 위험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과 위로가 조금이나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서울소방의 업무 능력향상과 소방대원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서울소방의 조직운영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부분부장 직제신설」

하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인상」

2013. 7.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